2015 이웃종교화합대회 개회사

2015년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식을 맞이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각 종단 수장님과 종교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님과 서울시 김민석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종무실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재정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특히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부조리와 갈등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타파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야하는 숙제는 우리 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음에도 깊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마음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부족함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남북관계 또한 쉽지 않습니다. 금년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한 민족으로서 공존과 상생을 위해 대화의 타협의 시간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종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고통에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생명의 존엄과 행복이 지켜지는 사회를 이루는 일은 모두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듯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속에서 먼저 필요한 일은, 다양한 종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화합의

모범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986년 창립된 이래 지난 29년 동안 이 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웃종교화합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3년 전부터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 까지 KCRP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종교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이웃종교스테이를 위시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이웃종교 이해 강좌, 각 종단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게 살기 운동’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지켜나가지 못하는데 있다는 각에서부터 출발한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종교인들은 솔선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앞장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범종교인 답게살기운동 중앙본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권길중 회장님과 7대 종단 신도 대표이신 공동회장단과 실행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러 일으켜, 사회와 시민에게 행복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23일

KCRP 대표회장 자 승